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국도7호선 4차로 확장공사 ‘현내~송현리’ 공구 지역 중장비업체들 임대료 체불 호소

3개월치 못 받아

“포크레인과 덤프 등 중장비 수십대가 달라붙어 3개월 동안 산 하나를 통째로 뚫어 길을 냈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간성~현내간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공사 2공구(현내~송현진 1)에서 일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지역 중장비업체들이 3개월치 임대료(인건비 포함)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중장비업체들에 따르면

현내~송현진1 구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한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별로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천만원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하청업체인 한라토건에 임대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어, 임대료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하청업체인 한라토건에서 자금사정 등 때문에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지난

17일 “우리는 체불된 것이 전혀 없으며, 하청업체인 한라토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토건에 수차례 지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라토건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7일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건설업체가 대부분 불황이라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3면으로 이어짐



박승태 슈퍼대회전·대회전 2관왕

제8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 대회전은 2연패



고성출신 박승태의 슈퍼대회전 경기 모습(사진 왼쪽). 오른쪽은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고성 출신 장애인 스키선수 박승태가 제8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

박승태(44세)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하이원 스키장 등 4곳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 슈퍼대회전과 대회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박승태는 첫날 슈퍼대회전에서 35.15초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대회전에서 1차전 33.30초, 2차전 34.80초 등 합산기록 59.37초 금메달로 거머쥐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전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환희와 감동 그리고 축제의 한마당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4개 종목에 총 683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슈퍼대회전과 대회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고, 대회전 2연패까지 달성한 박승태는 스키장 근무를 하던 중 충돌사고로 장애인이 되기전까지 인터스키(기술스키)로 기술선수권대회 참가해 상위를 입상할 정도로 실력파였다.

그는 2006년 2월 스노우 모빌과 충돌 사고로 양다리를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했으나, 16년

의 대수술과 혹독한 재활을 거쳐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스키에 도전하게 됐다.

현내면 산학리가 고향인 박승태는 스키국가대표를 지낸 ‘화진포 박포수 가든’ 박승로 대표의 셋째 동생으로, 집안 형제 모두가 스키 강사를 지낸 스키 가족이다.

박승태는 고성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어 속초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승태는 “주위 분들의 응원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마음편하게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며 “이 영광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雨水를 앞둔 날

겨울가뭄 끝에 폭설이 내린 현내면 화곡리 계곡. 백설에 스며든 물의 농담(濃淡)에 따라 세상이 한 폭의 수묵담채화로 변했다. 눈에 눈이 흘린 날에는 사물의 원근도 모호해지지만 실개천에 서성대는 유령들은 봄이 가까워졌음을 알린다.
<라이카 D-LUX 수동모드> 장공순 시민기자



2011 나눔 캠페인 9,400만원 모금

고성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이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성금을 집계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4천 30만원의 235%에 해당

하는 9천4백만원이 모금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